# 보도자료

이 자료는 5월 26일 13:30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 목 : 경제전망(2022.5월)

(붙 임) 참 조

[문의처 : 조사국] 경제성장 : 조사총괄팀 Tel. 02-759-4202, 지출부문 : 동향분석팀 Tel. 02-759-4234

고 용: 고용분석팀 Tel. 02-759-4232, 물 가: 물가분석부 Tel. 02-759-4231

대외거래: 국제무역팀 Tel. 02-759-4421, 국외경제: 국제경제부 Tel. 02-759-5280

[공보관] 02-759-4016, 4135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 경제전망

2022. 5.

조 사 국

# <u>차 례</u>

# < 요 약 >

I. 대외 여건 점검	1
<ol> <li>세계경제</li> <li>주요 전망 전제치</li> </ol>	1 6
Ⅱ. 거시경제 전망	7
1. 경제성장	7
2. 고 용 1	11
3. 물 가	12
4. 경상수지	13

# 요 약

- □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2.7%, 2.4% 수준을 나타낼 전망
  - 국내경제는 중국 봉쇄조치,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여건
     악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방역조치 완화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거리두기 해제,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설비투자는 최근 공급차질의 영향 등으로 조정을 지속하였으나
       향후 완만한 회복흐름을 나타낼 전망
    - 건설투자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당분간 부진하겠으나 하반기에는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상품수출은 주요국 성장세 약화,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
- □ 취업자수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58만명, 12만명 증가할 전망
  -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방역조치 완화 등에 힘입어 대면서 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

-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4.5%, 2.9%를 나타낼 전망
  - 원자재가격 상승 및 공급차질 심화,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지난 전망 수준을 큰 폭 상회할 전망
- □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500억달러, 540억 달러를 나타낼 전망
  -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지난해에 비해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경제 전망

(%)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하반	연간
• GDP <sup>1)</sup>	4.0	2.8	2.5	2.7	2.3	2.5	2.4
민간소비	3.6	3.9	3.5	3.7	3.1	2.3	2.7
설비투자	8.3	-5.4	2.6	-1.5	6.4	-2.1	2.1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0	4.7	3.3	4.0	3.4	3.9	3.7
건설투자	-1.5	-3.4	2.2	-0.5	3.9	1.5	2.6
상품수출	10.0	5.8	1.1	3.3	0.6	3.6	2.1
상품수입	11.9	5.3	1.5	3.4	2.4	2.4	2.4
<ul> <li>취업자수 증감(만명)<sup>1)</sup></li> </ul>	37	83	33	58	7	17	12
■ 실업률	3.7	3.2	3.0	3.1	3.7	3.3	3.5
■ 고용률	60.5	61.3	61.7	61.5	61.3	62.0	61.6
<ul> <li>소비자물가¹¹</li> </ul>	2.5	4.4	4.6	4.5	3.3	2.5	2.9
식료품·에너지 제외	1.4	3.0	3.3	3.2	2.8	2.3	2.6
농산물·석유류 제외	1.8	3.5	3.8	3.6	3.4	2.8	3.1
■ 경상수지(억달러)	883	210	290	500	220	320	540
주: 1) 전년동기대비							

# Ⅰ. 대외 여건 점검

## 1. 세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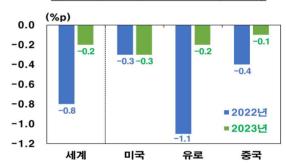
- □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둔화될 전망
  - 1/4분기중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의 성장세가 둔화
  - 향후 경제활동 재개가 지속되겠으나, 중국의 성장 둔화 지속,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둔화흐름이 지속될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전망시점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IMF	22.4월	6.1	3.6	3.6
(선진국)		5.2	3.3	2.4
(신흥국)		6.8	3.8	4.4
Bloomberg	22.5월	6.1	3.3	3.3
Global Insight	22.5월	5.8	2.9	3.1
6개 IB 평균	22.5월	6.2	3.2	3.3

자료: 각 기관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 변화<sup>1)</sup>



주: 1) 22.1월 대비 4월 증감 자료: IMF

- □ 세계교역은 증가세가 약화될 전망
  - ㅇ 향후 상품교역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증가세가 약화되 겠으나, 서비스교역은 입국제한 완화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

글로벌 상품교역량1) (전월대비, %) (19.1월=100) 115 10 110 5 105 0 100 95 -5 90 -10 ■증감률(좌축) 85 -세계 상품교역량(우축) 80 20.1 21.1 주: 1) 수출입 물량 평균 기준 자료: ĆPB

#### 글로벌 항공좌석 및 출입국 통제지수<sup>1)</sup>



주: 1)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출입국 통제 강도를 지수화(1=단순 검역, 2=자가 격리, 3=일부 봉쇄, 4=전체 봉쇄) 자료: OAG, 옥스퍼드大

# □ (미국)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질 전망

- 1/4분기중 내수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순수출과 재고투자 부진으로 성장세가 주춤
- 향후 서비스소비 개선, 민간투자 증가 등으로 완만한 성장흐름이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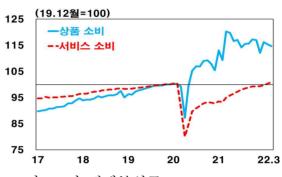
미국 주요 경제지표

		(	(전월대	비, %)
	22.1월	2월	3월	4월
산업생산	0.8	1.0	0.9	1.1
서비스소비	0.4	0.6	0.6	••
소매판매	2.7	1.7	1.4	0.9
실업률	4.0	3.8	3.6	3.6
ISM제조업지수 <sup>1)</sup>	57.6	58.6	57.1	55.4
[SMMHLC업자다]	59.9	56.5	58.3	57.1

주: 1) 기준치=50 자료: 미 연준, 경제분석국, 인구통계국,

노동통계국, ISM

#### 미국 항목별 개인소비지출(PCE)



자료: 미 경제분석국

# □ (유로지역) 회복흐름이 약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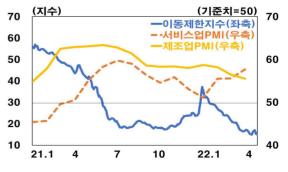
- 1/4분기중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 등으로 회복세가 약화
-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수급차질 가능성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유로지역 주요 경제지표

	비, %)			
	22.1월	2월	3월	4월
산업생산	-0.8	0.5	-1.8	••
소매판매	0.1	0.4	-0.4	••
실업률	6.9	6.9	6.8	••
제조업PMI <sup>1)</sup>	58.7	58.2	56.5	55.5
서비스업 <b>PMI</b> <sup>1)</sup>	51.1	55.5	55.6	57.7

주: 1) 기준치=50 자료: EU통계청, IHS Markit

유로지역 이동제한지수 및 PMI



자료: Goldman Sachs, IHS Markit

# □ (일본)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1/4분기중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소비 둔화 등으로 다소 부진 하였으나, 3월부터는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점차 회복 되는 모습
- ㅇ 향후 경제활동 재개, 대규모 재정지출 등으로 완만한 회복흐름을 이어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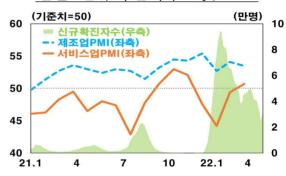
일본 주요 경제지표

		(	(전월대	비, %)
	22.1월	2월	3월	4월
산업생산	-2.4	2.0	0.3	••
소매판매	-0.9	-0.9	1.7	
수출(통관)	1.0	-0.5	1.6	1.0
민간기계수주액)	-2.0	-9.8	7.1	••
제조업PMI <sup>2)</sup>	55.4	52.7	54.1	53.5
<u>서비스업PMI<sup>2)</sup></u>	47.6	44.2	49.4	50.7

주: 1) 선박, 전력 제외 2) 기준치=50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재무성, 내각부, IHS Markit

일본 신규확진자수<sup>1)</sup> 및 PMI



주: 1) 7일 이동평균

자료: Bloomberg, Our World in Data

# □ (중국) 성장 둔화흐름이 지속될 전망

- 1/4분기중 경기부양책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3월 이후에는 감염병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
- ㅇ 추가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중국 주요 경제지표

		<u> </u>				
(전년동월대비, %)						
	22.1월	2월	3월	4월		
산업생산	-	$7.5^{1)}$	5.0	-2.9		
소매판매	-	$6.7^{1)}$	-3.5	<i>-</i> 11.1		
고정투자 <sup>2)</sup>	-	12.2	9.3	6.8		
수출	-	$16.3^{1)}$	14.6	3.9		
제조업PMI <sup>3)</sup>	50.1	50.2	49.5	47.4		
<u>비제조업PMI<sup>3)</sup></u>	51.1	51.6	48.4	41.9		

주: 1) 1~2월 누계 기준

2) 누계 기준

3) 기준치=50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해관총서

중국 PMI (기준치=50) 60 50 40 -제조업PMI -비제조언PMI 30 20.1 22.1 4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 (신흥국) 국가별로 성장세가 차별화될 전망

- ㅇ 아세안 5개국은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내수 회복,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회복흐름을 이어갈 전망
- ㅇ 인도는 감염병 상황 개선에 따른 서비스업 회복,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아세안5 주요 경제지표

#### 인도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전년동월대비, %)

4월

30.7

54.7

57.9

3월

1.9

19.8

71.7

54.0

53.6

	22.1월	2월	3월	4월		22.1월	2월
산업생산 <sup>1)</sup>	2.8	4.6	3.8		산업생산	1.5	1.5
소매판매 <sup>2)</sup>	10.2	9.4	••		수출	25.3	25.1
수출	13.8	18.4	23.2		소비자신뢰자수	64.4	-
(對중수출)	5.9	16.9	20.0	••	제조업PMI <sup>2)</sup>	54.0	54.9
제조업PMI <sup>3)</sup>	51.9	52.3	51.5	52.3	<u>서비스업PMI<sup>2)</sup></u>	51.5	51.8

주: 1) 인도네시아, 필리핀 제외

2) 필리핀 제외 3) 기준치=50

자료: 각국 통계청, IHS Markit, CEIC, Bloomberg

주: 1) 현재 경기 판단, 기준치=100 2) 기준치=50

자료: 인도 통계청, 인도 중앙은행, IHS Markit, CEIC, Bloomberg

- ㅇ 브라질은 감염병 확산세 진정, 원유생산 확대 등으로 완만한 회복흐름이 이어질 전망
- o 러시아는 미국, EU 등의 제재조치, 다국적 기업의 사업철수 등으로 성장세가 위축될 전망

#### 브라질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월대비, %)

	22.1월	2월	3월	4월
산업생산	<i>-</i> 7.3	-4.2	-2.1	••
소매판매	-1.5	1.3	4.0	••
수출	32.1	43.5	20.6	10.7
제조업PMI <sup>1)</sup>	47.8	49.6	52.3	51.8
<u>서비스업PMI<sup>1)</sup></u>	52.8	54.7	58.1	60.6

Bloomberg

		•		,
	22.1월	2월	3월	4월
산업생산	8.6	6.3	3.0	
소매판매	3.2	5.7	2.2	••
수출	72.1	••	••	••
제조업PMI <sup>1)</sup>	51.8	48.6	44.1	48.2
서비스업PM <sup>1)</sup>	49.8	52.1	38.1	44.5

주: 1) 기준치=50 주: 1) 기준치=50 자료: 브라질 통계청, IHS Markit, CEIC, 자료: 러시아 통계청, IHS Markit, CEIC, Bloomberg

- □ (국제유가)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최근 배럴당 110달러 내외 수준에서 등락
  - ㅇ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産 원유의 공급차질 우려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봉쇄조치의 전개상황에 따라 등락을 지속
  - ㅇ 주요 기관은 국제유가가 금년중 높은 수준을 지속하다가 완만 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

국제유가<sup>1)</sup> 및 OECD 원유 재고<sup>2)</sup> (달러/배럴) (십억배럴) 140 국제유가(좌축) 120 ■ 원유재고(우축) 3.4 100 3.2 80 60 3.0 40 2.8 20 2.6 20.1 22.1 주: 1) 두바이유 기준 2) 22.5월은 전망치 자료: Bloomberg, EIA

#### 주요 기관의 국제유가 전망<sup>1)</sup>

			(달리	러/배럴)	
	2022 <sup>e)</sup>				
	상반	하반	연간	2023 <sup>e)</sup>	
EIA (5.10 <sup>2)</sup> )	103.9	102.8	103.3	97.2	
IHS (5.13 <sup>2)</sup> )	104.6	112.9	108.8	100.1	
OEF (5.11 <sup>2)</sup> )	102.3	98.2	100.2	86.4	
IB 평균 <sup>3)</sup>	103.7	106.0	104.9	93.1	

주: 1) 브렌트유 기준 2) 전망일자 3) 5개 IB 기준 자료: 각 기관

- □ (기타워자재) 석타과 곡물을 중심으로 상승
  - ㅇ 주요 기관은 기타원자재가격이 곡물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내년중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World Bank, 22.4월)



기타원자재가격 전망

					(달	러/톤)
	천연 기스 <sup>1)</sup>	석탄	궤	알루 마늄	옥수수	소맥
'17~19	6.1	91.1	6,237	1,957	163	195
2020	3.2	60.8	6,174	1,704	165	232
2021	16.1	138.1	9,317	2,473	260	315
2022 <sup>e)</sup>	34.0	250.0	10,100	3,400	310	450
2023°)	25.0	170.0	9,700	3,100	280	380

주: 1) 석탄은 호주 뉴캐슬항 현물, 천연가스는 주: 1) 유럽 천연가스 기준, 달러/MMBtu TTF 거래소 현물 기준 자료: World Bank(22.4월)

자료: Bloomberg

# 2. 주요 전망 전제치

# (전망의 기본 가정)

- □ (우크라이나 사태) 금년 하반기까지 군사적 긴장과 제재가 지속되다가 연말 이후 점차 완화
  - 금년중 원자재 수급불안 및 글로벌 공급차질이 지속되고 내년부터는 완만하게 개선
- □ (중국 방역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간헐적으로 봉쇄조치가 시행
- □ 2022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등 대외여건과 최근의 주요국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3.4%로 전제
  - ㅇ 2023년도 3.4% 성장
- □ 세계교역 신장률은 4.6%로 전제
  - 2023년은 4.2% 증가
- □ 원유도입단가(기간 평균)는 배럴당 102달러로 전제
  - 2023년은 93달러 수준

## 전망 전제치

(%) 2022<sup>e)</sup> 2023<sup>e)</sup> 2021 상반 연간 하반 세계경제 성장률<sup>1)</sup> 6.1 3.2 3.6 3.4 3.4 5.7 3.1 2.6 2.9 2.1 미 국 유 로 5.4 1.9 2.9 2.3 4.0 일 본 1.7 0.9 3.2 2.0 1.5 중 국 8.1 3.3 5.1 4.3 4.9 세계교역 신장률<sup>1)</sup> 5.0 4.2 10.1 4.3 4.6 • 원유도입단가(달러/배럴)<sup>2)</sup> 70 103 102 93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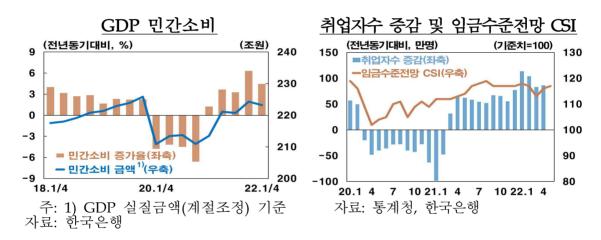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기준

<sup>2)</sup> 기간 평균, CIF 기준, 원유도입비중: 중동산 58.1%, 여타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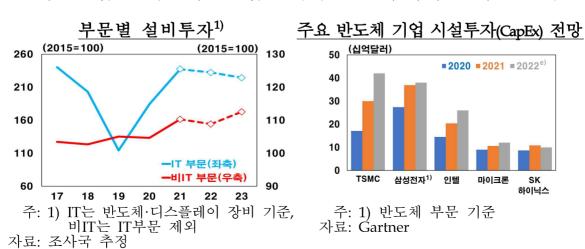
# Ⅱ. 거시경제 전망

# 1. 경제성장

- □ (민간소비) 방역조치 완화,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부문별로는 대면서비스 소비와 국외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재화 소비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향후 물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이 점차 늘어나겠으나 추경 등 정부 지원정책과 코로나 위기 이후 축적된 가계의 구매력이 소비 회복을 뒷받침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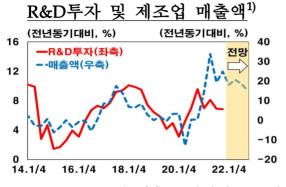


- □ (설비투자)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흐름을 나타낼 전망
  - 제조업은 비IT부문의 투자가 대체로 부진하겠으나 IT부문 투자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
  - ㅇ 서비스업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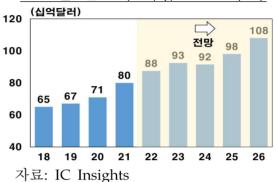


- 7 -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R&D투자는 기업 실적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정부의 R&D 지원도 강화되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ㅇ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디지털 전환 지속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투자가 증가할 전망



글로벌 반도체 기업 R&D 투자



주: 1) 21.4/4분기 이후는 컨센서스 수치 자료: 한국은행, FnGuide

- □ (건설투자) 글로벌 공급차질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당분간 부진하겠으나 하반기에는 완만한 개선세를 나타낼 전망
  - ㅇ 주거용 건물건설은 그간 이연되었던 신규 분양이 하반기 이후 점차 실행되면서 공사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ㅇ 비주거용 건물건설은 서비스업 업황 개선에 힘입어 상업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토목건설은 정부의 SOC투자 감소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





- □ (대외거래) 상품수출은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겠으나, IT부문에 대한 구조적 수요확대가 둔화 흐름을 일부 완충할 전망
  - 통관수출의 경우 IT 수출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서버용 반도체 수요 확대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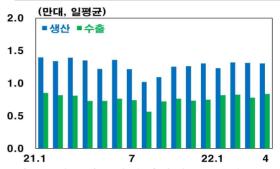
비IT 수출은 석유제품이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난 완화 등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전망

<u>.</u> (전년대비, %) **2.0** 기관 2022<sup>e)</sup> 2021 Gartner 26.3 13.6 (22.3월) IC Insights 24.6 10.8 (22.1월) **WSTS** 26.2 10.4 (22.3월)

자료: 각 기관

국내 자동차 생산 및 수출 증가율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세청

- ⇒ 경제성장률은 금년중 2.7%, 내년중 2.4% 수준을 나타낼 전망
  - 국내경제는 중국 봉쇄조치,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여건
     악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방역조치 완화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4.0	2.8	2.5	2.7	2.3	2.5	2.4
민간소비	3.6	3.9	3.5	3.7	3.1	2.3	2.7
설비투자	8.3	-5.4	2.6	-1.5	6.4	-2.1	2.1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0	4.7	3.3	4.0	3.4	3.9	3.7
건설투자	-1.5	-3.4	2.2	-0.5	3.9	1.5	2.6
상품수출	10.0	5.8	1.1	3.3	0.6	3.6	2.1
상품수입	11.9	5.3	1.5	3.4	2.4	2.4	2.4

□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금년과 내년중 내수 기여도는 지난해에 이어 큰 폭의 플러스를 나타내겠으며 수출 기여도는 지난해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

순성장 기여도(%p)	<u>2019</u>	<u>2020</u>	<u>2021</u>	<u>2022</u> e)	<u>2023</u> e)
▶내 수	1.9	-0.4	1.7	1.8	1.7
▶수 출	0.3	-0.5	2.3	0.9	0.7

- □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상방리스크) 소비회복세 강화, 신성장 부문 투자 확대, 중국 경기부양책 확대 등
  - (하방리스크) 중국 봉쇄조치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금융여건 악화 등

# GDP 성장률 전망경로 (전년동기대비, %) 4 2 0 19.상 20.상 21.상 22.상 23.상 자료: 한국은행

# 내수와 수출의 순성장 기여도<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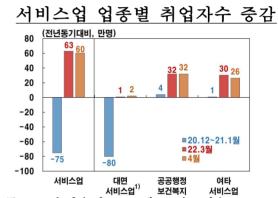


주: 1) I/O표를 이용하여 세부 지출항목별로 수입유발 효과를 차감하여 시산 자료: 한국은행

### 2. 고 용

- □ 취업자수는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 가세를 이어갈 전망
  - 제조업 취업자수는 수출 증가세 문화의 영향 등으로 증가폭이 줄어들 전망
  -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보건복지업과 비대면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겠으나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주: 1)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 예술·스포츠· 여가, 개인서비스 등 자료: 통계청

⇒ 취업자수는 금년중 58만명, 내년중 12만명 증가할 전망

고용 전망

(만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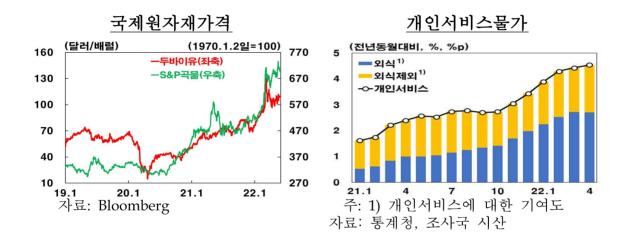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취업자수 증감 <sup>1)</sup>	37	83	33	58	7	17	12	
실업률	3.7	3.2	3.0	3.1	3.7	3.3	3.5	
(S.A.)	-	3.0	3.3	-	3.4	3.5	-	
고용률 <sup>2)</sup>	60.5 [66.5]	61.3 [67.8]	61.7 [68.1]	61.5 [68.0]	61.3 [68.1]	62.0 [68.7]	61.6 [68.4]	

주: 1) 전년동기대비

2) 15세 이상, [ ]내는 15~64세(OECD기준)

# 3. 물 가

- □ 금년중 소비자물가는 원유,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 공급차질 심화 등으로 오름세가 크게 확대될 전망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도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측 압력 증대로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석유류, 식료품, 외식 등 구입빈도와 지출비중이 커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일반인들의 기대인플레이션(향후 1년)도 3%대로 상승



-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4.5%, 2.9%를 나타낼 전망
  -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에너지 제외)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3.2%, 2.6%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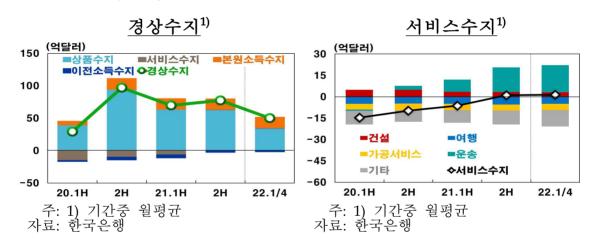
물가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2.5	4.4	4.6	4.5	3.3	2.5	2.9	
식료품·에너지 제외	1.4	3.0	3.3	3.2	2.8	2.3	2.6	
농산물·석유류 제외	1.8	3.5	3.8	3.6	3.4	2.8	3.1	

# 4. 경상수지

- □ 금년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를 중심으로 지난해에 비해 흑자규모가 축소될 전망
  - 상품수지는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
  - 서비스수지는 운송서비스 호조가 지속되겠으나 방역조치 완화로 내국인 해외여행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적자폭이 확대될 것 으로 예상
  - 본원소득수지는 글로벌 경기회복세 둔화에 따른 투자수익 감소로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



- ⇒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500억달러, 540억달러를 나타낼 전망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금년과 내년중 모두 3% 내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 전망

(억달러)

	2021	2022 <sup>e)</sup>				2023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	883	210	290	500	220	320	540		
상품수지	762	200	310	510	270	350	620		
서비스·본원·이전소득	121	10	-20	-10	-50	-30	-80		